

# 보성·고흥 선거구 더민주는 강진, 국민의당 장흥 통합 선호

## 전남 선거구 확정 치열한 물밑 힘겨루기

여야의 선거구 확정 협상이 막판에 접어들면서 광주·전남 선거구 획정을 놓고 각종 시나리오가 유행하고 있다.

여야는 광주지역 8개 선거구를 유지하는 한편, 전남은 11개의 선거구를 10개로 줄이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남의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남 정치권을 양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은 서로 유리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팽팽한 물 밑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 간의 이해가 얽히면서 선거구 획정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보성·고흥과 무안·신안 2개의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인근 선거구의 연쇄적인 조정을 통해 1개의 지역구를 줄이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더민주 측에서는 보성·고흥과 인접 선거구인 장흥·강진을 붙이고 영암은 무안·신안에 붙이는 방안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당 소속인 김승남(보성·고흥) 의원과 황주홍(강진·장흥·영암) 의원이 공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암은 인근의 무안·신안에 붙이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당 측에서는 강진·영암이 무안·신안과 합쳐지고 장흥은 보성·고흥

## 유리한 선거구 확정 싸고

### 더민주·국민의당 줄다리기

과 붙이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더민주의 이윤석 의원 측에서는 영암보다는 이개호 의원의 지역구인 함평을 붙이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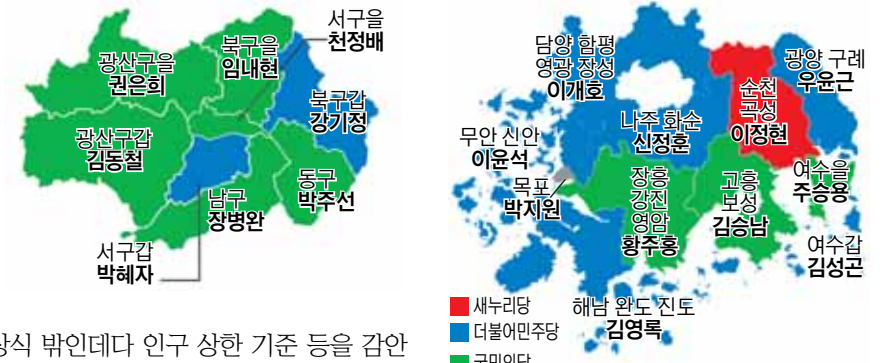
영암은 김영록 의원 지역구인 해남·진도·완도에 붙일 수 있고, 함평을 떼어준다고 해도 이개호 의원 지역구는 유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영록 의원 측에서는 인구 미달 지역구끼리 조정하면 되는 일이라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보성·고흥·강진·장흥과 무안·신안·영암 등으로 조정하면 전남 선거구의 조정이 최소화된다는

것이다.

순천·곡성 지역구에서 곡성을 분리하는 것도 문제다. 선거구가 확대되는 우윤근 의원의 측에서는 부담스러운 방안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함평이 무안·신안으로 합쳐진다는 전제 아래 곡성을 영광·장성·담양에 붙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다른 일각에서는 장흥·강진·영암이 하한 인구를 넘겨 선거구를 유지하게 된다면 하한선을 넘지 못하는 고흥·보성과 무안·신안만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영광·함평·담양·장성에서 함평을 떼어 무안·신안에 부쳐 선거구를 살리고, 대신 고흥·보성에서 보성은 장흥·강진·영암으로, 고흥은 순천 등으로 붙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완전히 떨어진 순천과 고흥을 하나의 선거구로 만드는 것은

## 19대 총선 광주·전남 선거구 및 현역 의원·소속 정당 분포



상식 밖인데다 인구 상한 기준 등을 감안한다면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평가다.

정치권 관계자는 “더민주가 당의 이해관계에 얽혀 전남 선거구 조정에 나선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불수도 있다”며 “현재 각종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지만 최종안

은 여야의 선거구 확정 합의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종인, 北 궤멸론 이어 햇볕정책 보완론 제시 당내 논란  
문재인,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정부 자충수” 연일 강경론

# 대북정책 당론 없는 제1야당 더민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북·안보 문제와 관련해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간 엇박자 행보를 보이면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중단 등 일련의 사태 속에서 김 대표가 종래 더민주의 입장과 온도차가 나는 것을 넘어 이질감까지 느껴지는 듯한 표현을 잇따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연일 ‘우클릭’(중도 또는 보수성향 강화) 발언을 이어가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 핵심 내용인 ‘햇볕정책’을 계승해온 당내 여론마저 분열하는 등 국민들의 혼란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비대위 회의에서는 ‘햇볕정책 보완론’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햇볕정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설계된 것이고, 새누리당이 집권한지 8년을 넘어 시대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여기에 맞는 정책을 다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햇볕정책이 지금도 맞는지는 진단해봐야 하고, 발전된 햇볕정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당이 계승해야 할 대북 정책의 기본 중 핵심노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보완·발전이라

## 햇볕정책 엇박자에 당내에서도 부글부글 국민의당·박지원 잇단 비판

는 언급 자체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한 참석자는 “우리가 어떤 햇볕정책을 해야 하느냐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일부 비대위원들은 김 대표의 햇볕정책 발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앞서 김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더민주에 생경한 용어인 ‘북한 궤멸’이라는 표현을 써 마치 보수 진영의 ‘흡수통일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눈초를 샅샅이 살피고, 그는 “그 말 자체를 취소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응수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취했을 때도 ‘무조건 반대’ 능사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할 시간을 주자”는 신중론을 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표는 “정부가 즉흥적·감정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는 자충수를 뒀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후 문 대표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개성공단에 진출하고 투자한 분들에게 큰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거꾸로 뒤투수를 맞게 만들었으니, 무슨 이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

였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와 야권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국민의당은 ‘북한 궤멸’ 발언을 “민주세력의 정통성과 정체성의 근원을 뒤흔드는 중대사안”이라고 규정하고 “차라리 햇볕정책 포기를 선언하라”고 비판했다.

햇볕정책을 내걸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렇게 막말을 하는 것은 굉장한 혼란만 오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당내에서도 김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가 있지만 아직은 지켜보자는 기류가 강하다.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김 대표에게 가급적 말을 아끼자는 속내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 측에서는 연이은 발언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더민주를 향한 여당의 ‘중북 프레임’ 공세를 차단하고, 경제 어젠다가 총선 이슈에서 묻히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담겨 있다고 설명한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선거에서 안보 이슈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힘든 서민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민생 이슈를 선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비대위원들도 대부분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가 16일 오후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가운데)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당 선대위 이번주 출범...총선체제 전환

## 19일 총선후보 공모 마감 정동영 등 인사 영입은 꺾여

국민의당이 이번 주 내에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4·13 총선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거물급 외부 인사 영입은 진척이 없는데다 선대위 후속 인선도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어 순항 여부는 미지수다.

16일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와 김한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전날 시내 모처에서 만나

이번 주에 선대위를 공식 출범시키고 당을 총선 체제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제로 오는 19일로 총선 후보 공모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후보 공천 작업을 시작해야 하므로 더 이상 선대위 출범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후보 공천과 관련된 시행세칙도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선대위 체제로 전환된다고 해도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마련할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대위가 출범한다고 해도 안철수·천정배·김한길 3각 체제에서 역할 분담이나 인선 등을 놓고 상

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전 의원이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국민의당이 정성을 들여온 거물급 외부 인사의 영입 논의도 꺾여가는 양상이다.

정 전 의원의 경우 합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여전히 무소속 출마 의지가 강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상돈 교수는 국민의당 합류에 대해 “합류하더라도 당내 역할이 있는지 문제”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내에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 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문의: 노안리식/Karma Inkay를 이용한 시술/다초점 인공 수정체/레스토렌즈/레이저내안역레이

부작용: 수술 초기 아찔, 빛반질, 노안리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의뢰 제 140611-중-59153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